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대림 시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뇨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2/15(일) 대림 제 3 주일(본당 11:00, 공소 17:30)
▶이번 주는 판공성사 관계로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12/22(일) 대림 제 4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판공 성사
▶이번 주 12/19(목) 18:00 ~
해당 구역장님으로부터 성사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공성사표를 못 받으신 분은 당일 여분의 판공성사표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성탄 구유 예물 봉헌
12/24 성탄 밤 미사(21:00)와 12/25 성탄 미사(16:00)중 구유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처: 레바논 국경지역의 가톨릭 교회 (ACN Canada 교황청후원)

◎성탄 밤 미사 및 성탄 대축일 미사 전례연습
▶ 전례 분과와 복사단 - 일사: 12/22(일)

◎성탄 맞이 본당 대청소
▶오늘 미사 후 성당 내부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 구역은 게시판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청소를 마친 구역은 구역원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 구역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예 친교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오늘 복음 중)

◎성탄 공연
▶장르: 노래, 합창, 연주, 춤, 연극등 모든장르
▶대상: 각 구역및 본당 제단체
※각 구역장들은 간략하게 공연에 필요한 사항을 선교/행사분과장 김한옥 에릭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꽃동네 의류 도네이션
겨울용 의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도네이션 품목은 김한옥 에릭 선교분과님과 확인 후 복도 벤치에 있는 상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금일 간식은 김윤정 데레사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공소 판공성사(12/8, 12/15, 12/22) 미사 시작 30 분전
▶12/29(일) 미사후 친교 식사는 없습니다.
▶12/31(화) 송년미사 7:00 PM
(미사 후 김대하 요한 신부님 사제 서품/영명축일 기념 파티)
▶12 월 공소 세례 축일자 1 명 12/20 에리카(맹선민)

단체 소식

구역모임(소식)

친교 식사
12/15: 3 구역 얼큰 소고기 콩나물국(\$5/\$3)
12/22: 4 구역 12/29: X 2025.1/5: 5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7 명)			
주일헌금	\$2460	교무금	\$35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4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주일학교 - \$300(도금자 데레사)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판공성사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매년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 교회의 규정에 따라 고해 성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판공 성사표를 받아 고해 성사를 보게 되고, 교회는 성사를 받은 사실을 교적에 1 년에 2 회 기재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돌보게 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판공 성사를 연속 3 년 이상 받지 않은 신자를 ‘쉬는 교우’로 규정하여 분류하게 되므로 성사 후 판공 성사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판공 성사를 타 본당에서 받았으면 고해 신부의 확인을 받아 교적이 있는 본당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 군대 등 본당에서 판공을 받을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판공 성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본당 사무실에 판공 성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989 조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첫영성체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989 조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15	권희진 요안나	유서진 다니엘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12/22	신낙홍 마리아	최다희 보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인선 켄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12/24	김성수 베드로	최두원 스테파노, 최다인 안나 유서진 다니엘, 유세진 라파엘 송찬 아론, 최아현 베로니카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이인선 켄마 박규혜 카타리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니까?

당감 성당 주임
이동화 타라구스 신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 3주의 복음은 우리를 세례자 요한에게로 인도합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오실 분을 기다리는 이였습니다. 요한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복음은 군중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니까?” 군중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은 군중들에게 여벌의 옷과 음식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요청합니다. 동시에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것을,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다른 이의 것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세례자 요한이 요청하는 회개란 자선을 베풀고 정의를 세우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사실 자선과 정의는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의 요청이자 그리스도교 전통이 가르치는바이기도 합니다.

자선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자선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참다운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입장)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선은,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 자기 자신의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가져다줍니다. 그러기에 자선은 우리가 현재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 주며,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자선은 참으로 자선이라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자선의 의미를 더욱 묵상하면 할수록, 자선은 정의의 요청에 맞달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거나 ‘강탈하거나 갈취’하는 마음으로 자선을 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가난한이들의 뒤통을 돌려주지 않는 정의란 거짓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선과 정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사랑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란 자선을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 교회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 및 사회 고려 주간으로, 그리고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보냅니다. 자선을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대림 주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대림 3 주일 (자선주일) (2024. 12. 15.)

제 1 독서 스바니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3,14-18 ㄱ
화답송 이사 12,2-3.4 ㄴ ㄷ ㄹ.5-6(◎ 6)



후렴.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4,4-7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창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3,10-18